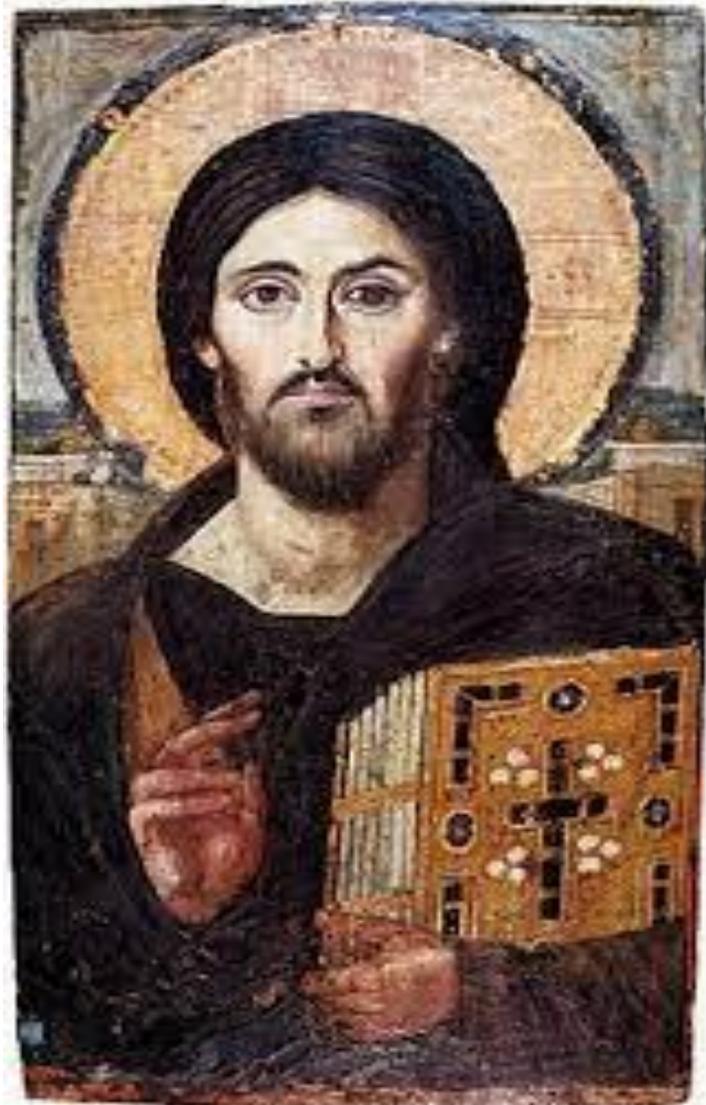


제7강의(8월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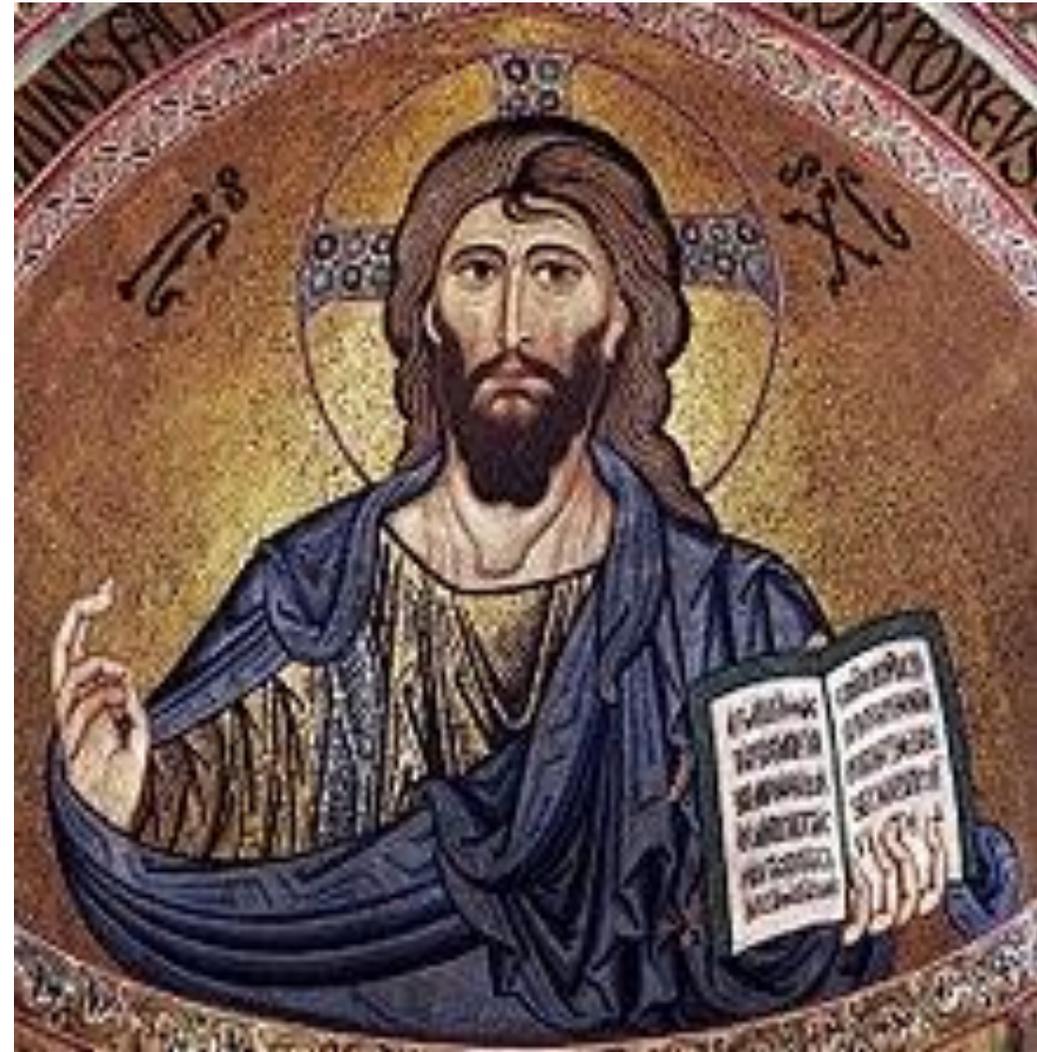


'예수님과 제자들'
열두사도와 바오로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이름	예 수	(나 자 렷)
부모	부: 요셉	모: 마리아
출생지	베들레헴	유다 지역 (기원 전 1-4)
거주지	갈릴리 나자렛	
직업	목수, 스승	
사망	십자가형	사형선고 (기원후 30-33년)
점령국가	로 마 제 국	



Christ Pantocrator mosaic in Byzantine style, from Cefalù Cathedral, Sicily, c. 11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ישוע

משיח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요한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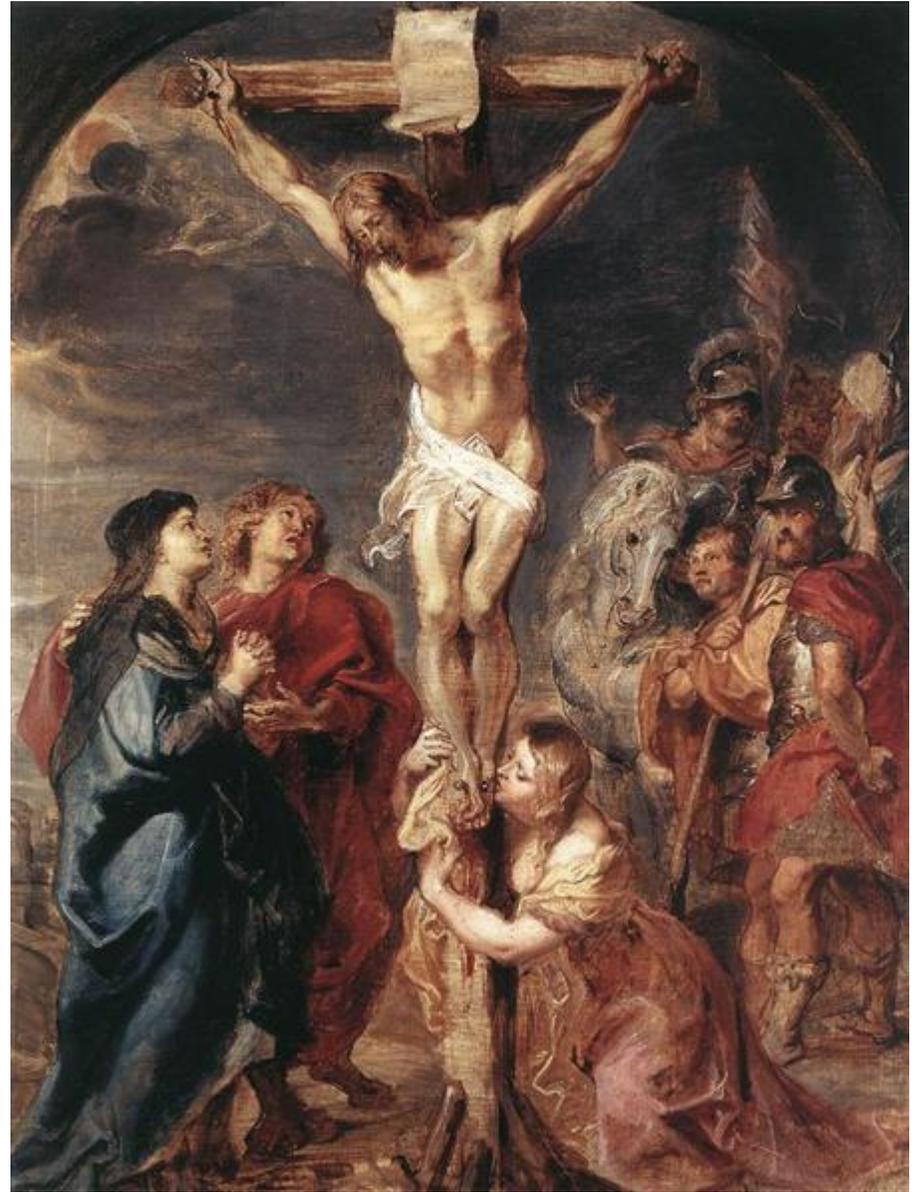
ישוע הנצרי ומלך היהודים

Ἰησοῦς ὁ Ναζωραῖος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IESVS·NAZARENVS·REX·IVDÆORVM

basilica di santa croce gerusalemme roma





예수님 부활에 대한 논란

마태오 복음의 증언

가. <부활전>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드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마태 27,62-66)

나. <부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였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마태 28,1-4)



성 시스티나 경당 벽 그림

다. <경비병매수와 허위증거조작 >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 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마태 28.11-15)



<요한복음의 증언>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1,29-33)

<예수님의 대답>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루카 7,18-23)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7,2-6; 루카 7,18-23)

(이사 26,19; 29,18-19; 35,5-6; 61,1의 내용을 인용하심)

최고 의회에서 가말리엘의 중재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사백 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5,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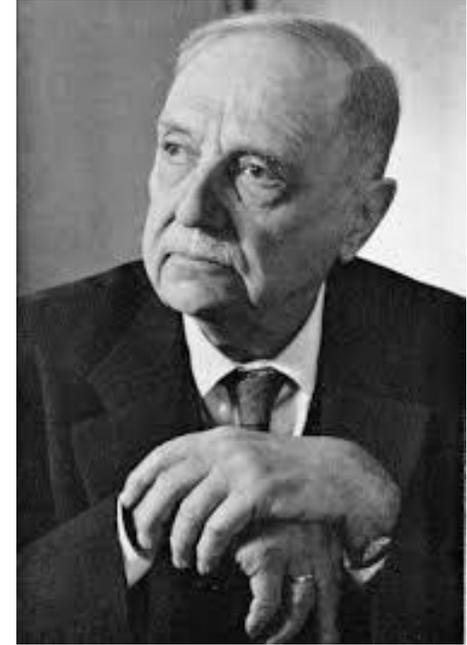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기원후 37년 경-100년 경)의 증언

“이 때에 예수가 살았는데 참으로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는 현인이었다. 그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희랍인들을 추종자로 삼았다. 그는 메시아였다.

(ant.16,63/Jewish Antiquities)

루돌프 볼트만(Rudolf Karl Bultmann, 1884-1976년)

독일의 신학자. 마르부르크 대학교(Universität Marburg)의 신약학 교수로 30년 교수로 재직.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방법을 기준으로 복음의 비신화화를 시도한 신학자.



'예수는 그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꾸며낸 허구이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그런 사건이 아니다.

Rudolf Karl Bult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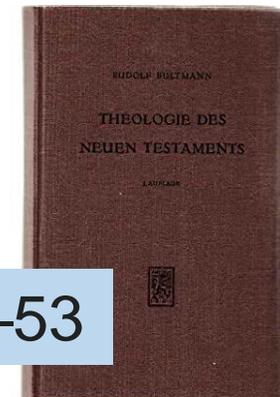
비신화화(非神話化 Entmythologisierung)

공관복음서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1921, 1931

신약성서와 신화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1941

요한복음서 (*Das Evangelium des Johannes*)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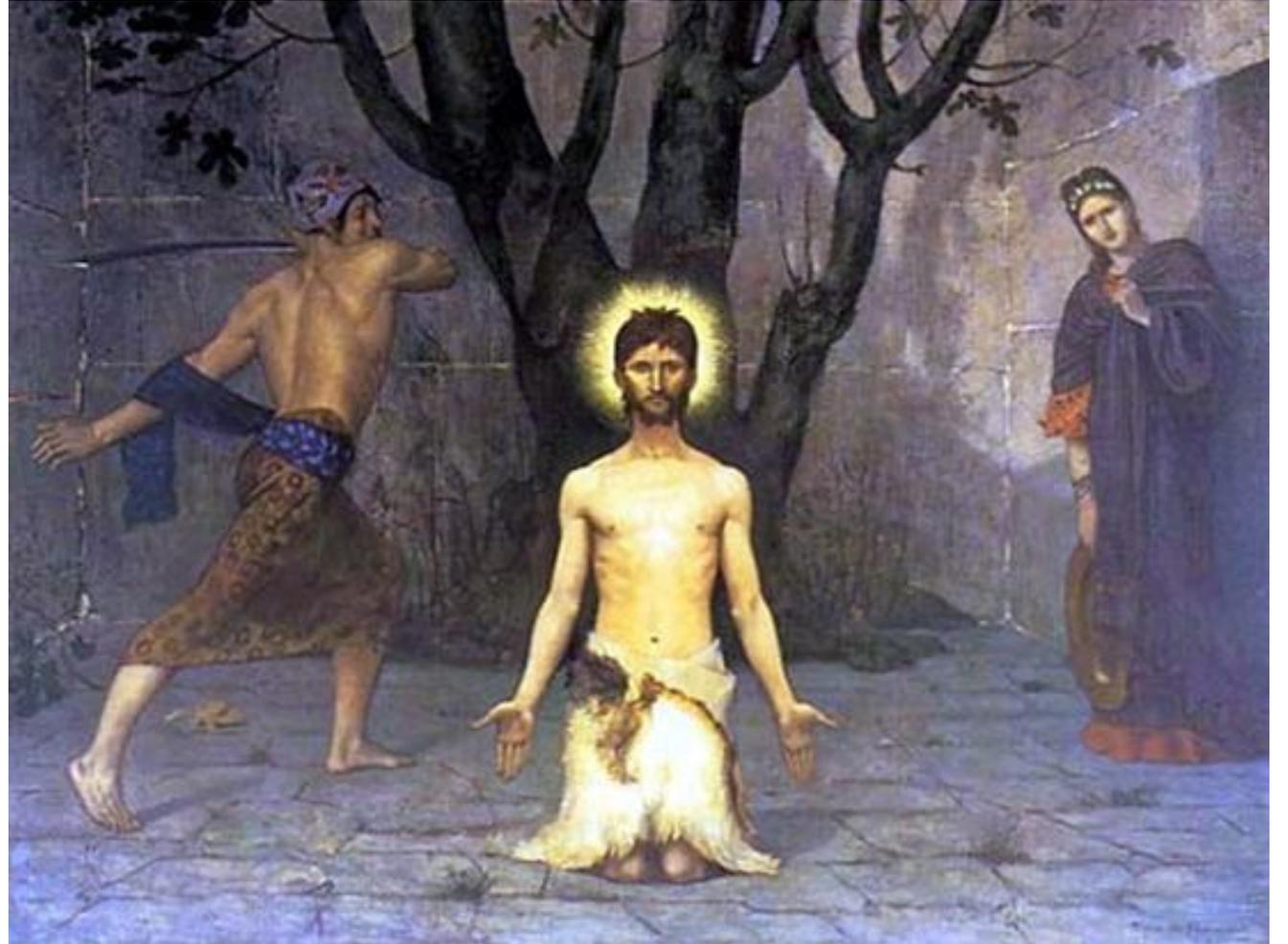
신약성서의 신학(*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1948–53



‘빛의 증언자’ -세례자 요한-

Ἰωάννης ὁ βαπτιστής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 1,6-7)



Pierre Puvis de Chavannes (1824~1898), 세례자 요한의 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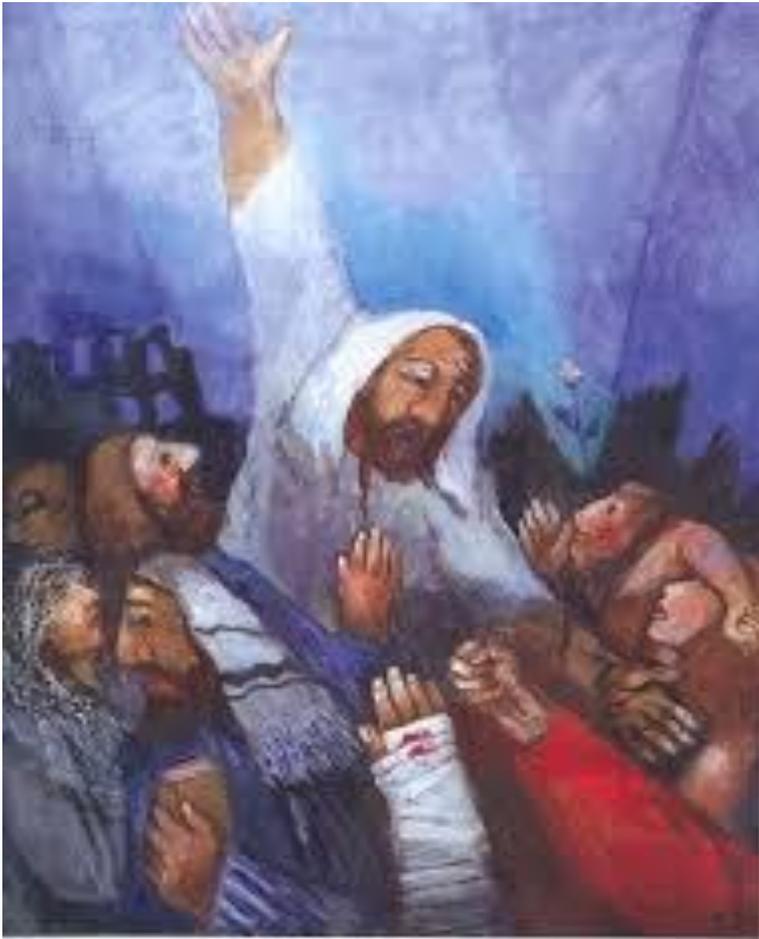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작(성시스티나 경당)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루카 1,63-64)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시리라.”
(루카 1,78-79)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십오 년째 되던 해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래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립보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리사니아였다. (루카 2,1)



그리고 당시의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다. 바로 그 무렵에 즈가리야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는 요르단 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루카 2.2-4)

세례를 받으신 예수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루카 3,21-22)

요한이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고 사양한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마태 3,13-15)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리스도의 세례>
1440년경, 런던, 내셔널 갤러리.

메시아 증인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요한 1,29-30)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1,31-34)

열두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마태 10,2-4)

야곱의 열두 아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야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파탄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창세 35,23-26)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이사 42,1-3;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사 49,6;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 주 하느님께서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서 나를 도와 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이사 50,5-7;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 사람들에게 멸시 받고 배척 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 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 (이사 53,3;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태 4,18-22; 마르 1,12-13 ; 루카 4,1-13)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태 4,12-17; 마르 1,14-15; 루카 4,14-15)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 4,18-22; 마르 1,16-20; 루카 5,1-11)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마태 4,18-22)



고기잡이 기적, 라파엘로(Raffaello, 1483-1520)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두초((Duccio di Buoninsegna, 1260-1319)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마태 9,9-17;
마르 2,13-17; 루카 5,27-32)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태 10,1-4; 마르 3,13-19; 루카 6,12-16)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다 (마태 10,5-15; 마르 6,7-13 ; 루카 9,1-6)

박해를 각오하여라 (마태 10,16-25; 마르 13,9-13; 루카 21,12-17)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태 10,26-33; 루카 12,2-9)

사울, 바오로

바오로 킬리키아 수도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사도 21, 39;
22, 3).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약
10 여 년 늦게 출생하였다고 한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 율법교사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사도 22, 3)
타르수스는 산업과 교역이 번창한
도시로 소아시아 그리스 문화와
근동의 셈족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바울로의 제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로의 제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오로의 로마 호송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도28,16)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뵈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사도 28,17-20)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히브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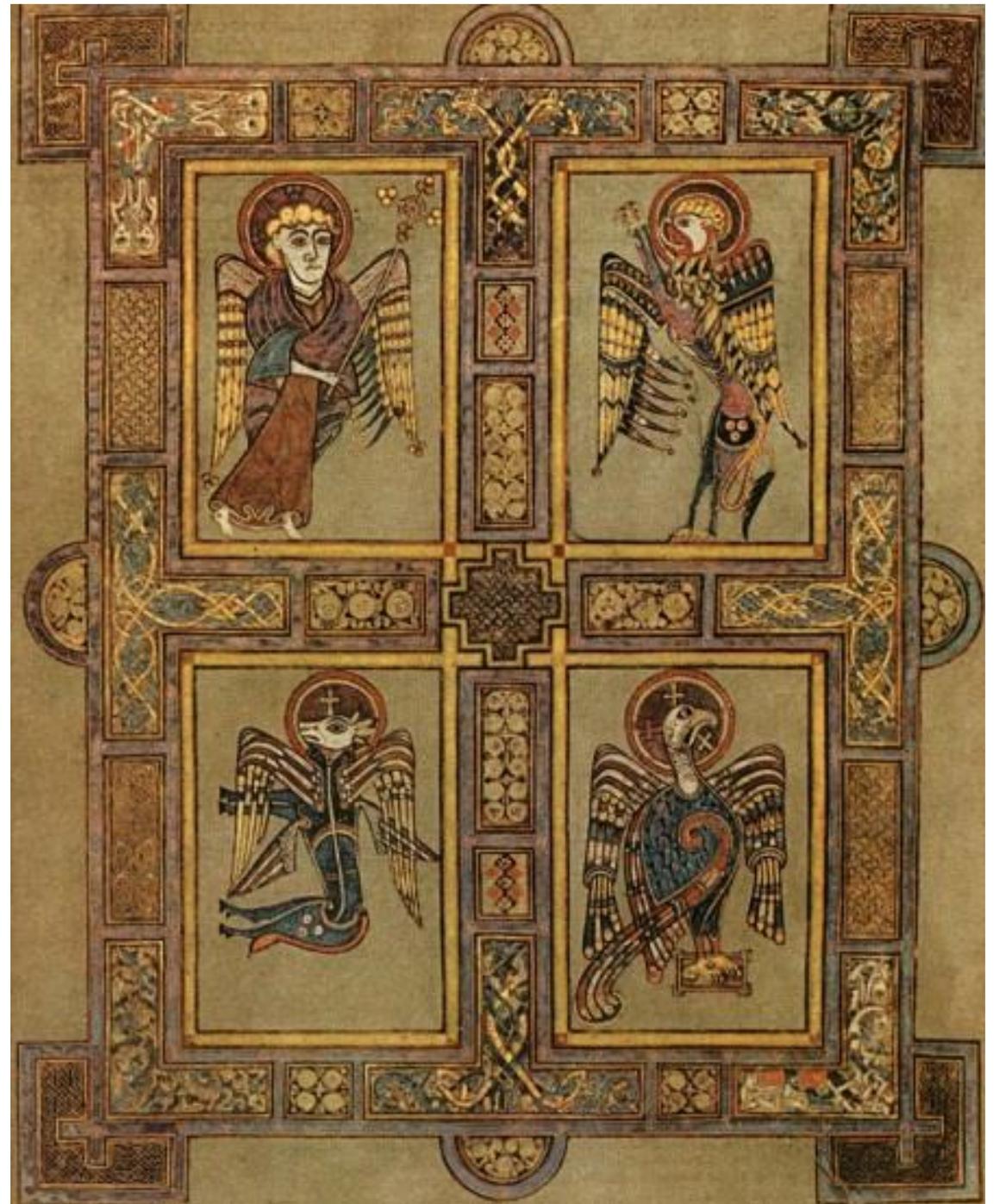
‘복음사가들’ -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εὐαγγέλιον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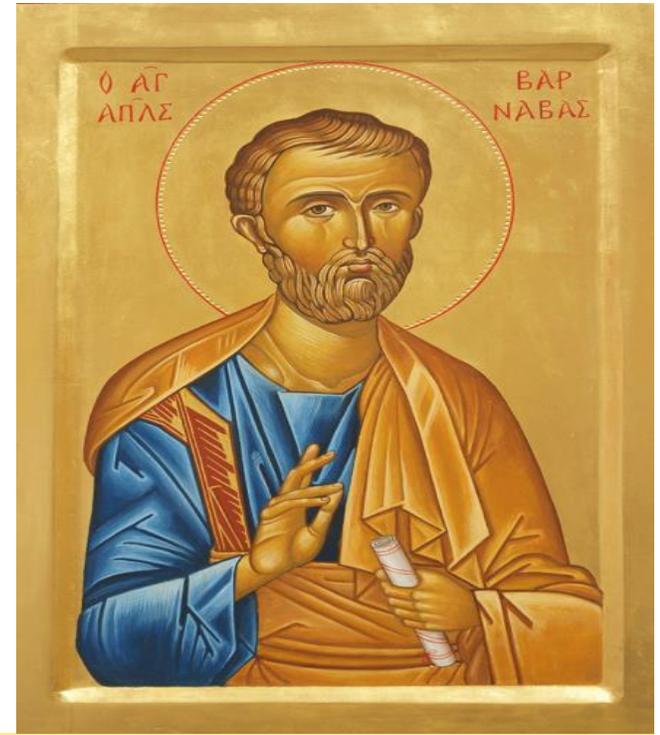
기쁜소식 GOOD NEWS

마르코-사자
마태오-사람(천사)
루카-숫소
요한-독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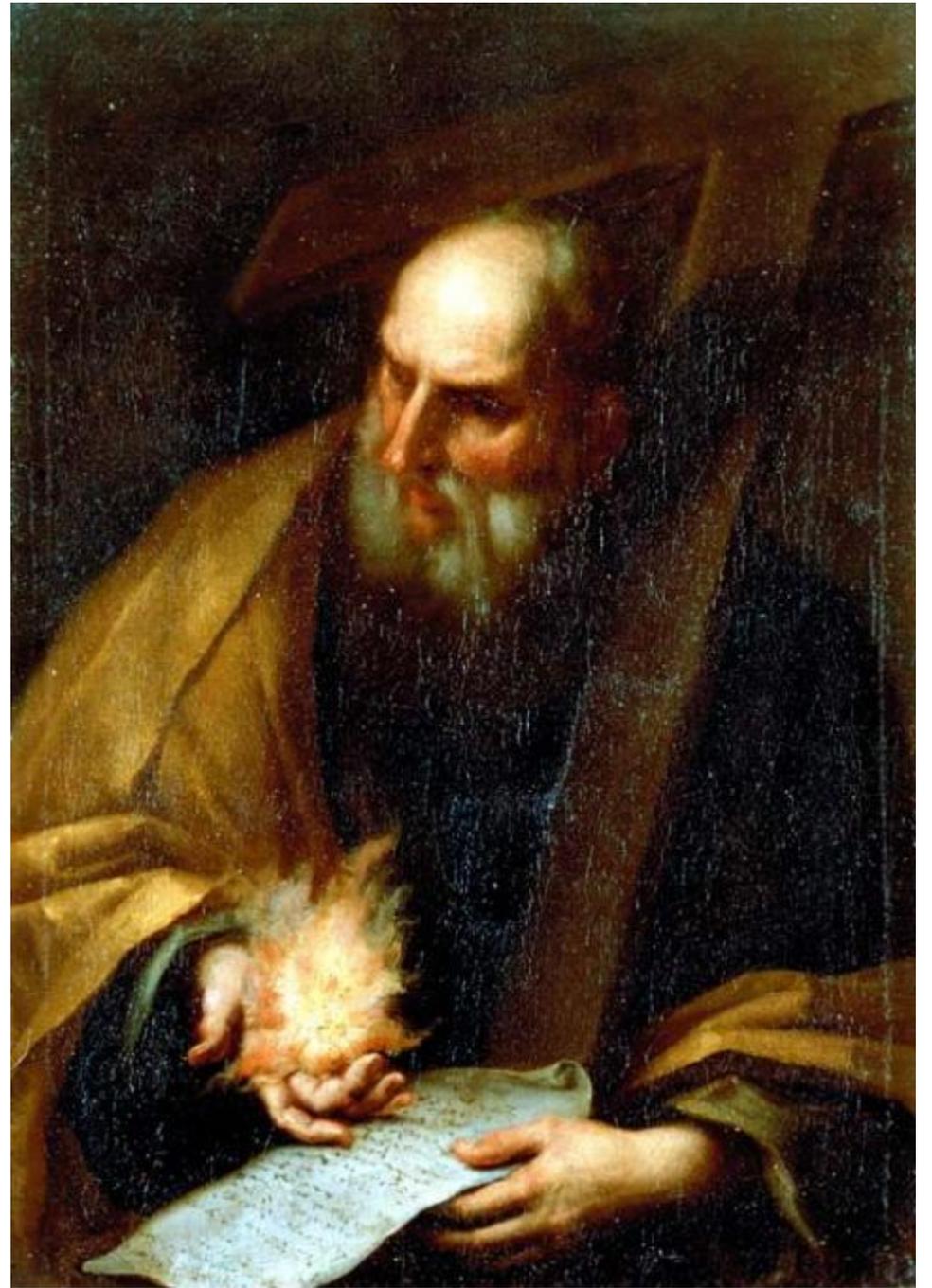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 4,34-37)



키프로스 태생으로 요셉이라 하였는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봉헌하였다. 이때 사도들이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도 9,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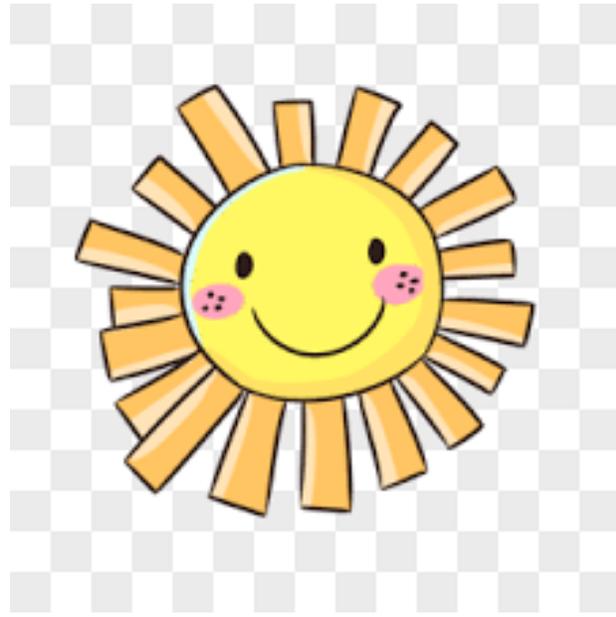
Anonimo lombardo, S. Barnaba, evangelizzatore di Milano, XVIII sec., Quadreria Arcivesc., Milano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 11,19)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도 11,22-26)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신다.



저 밝은 햇빛이 온 누리에 비치니
우리는 항상 즐겁다
내 비록 슬픔을 지냈을지라도
햇빛은 지지 않으리
오 나의 안식처일세
햇빛은 지지 않으리
오늘도 날 위해 저 밝은 햇빛을
가득히 비추어 주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요한 20,16)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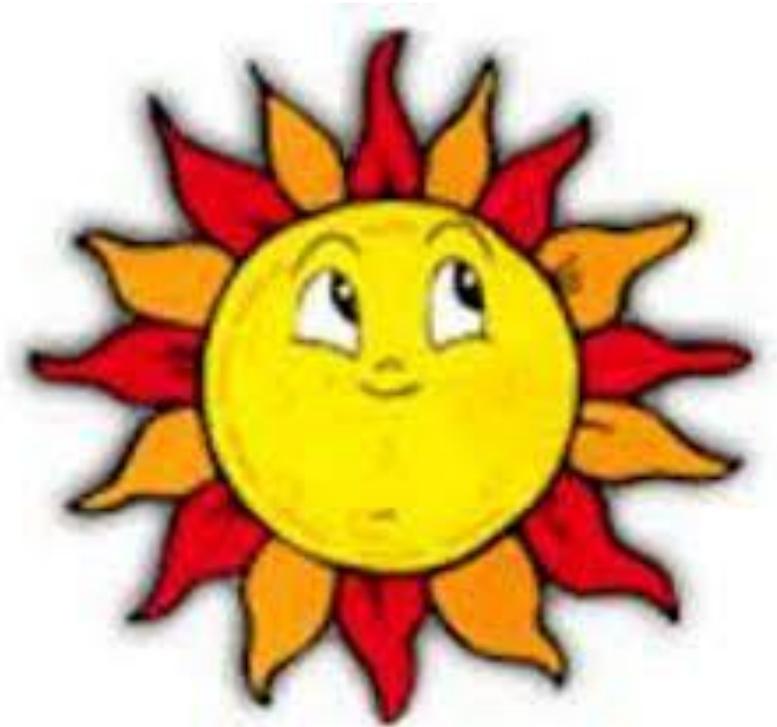


Che bella cosa na jurnata 'e sole,
n'aria serena doppo na tempesta!
Pe' ll'aria fresca pare gia' na festa...
Che bella cosa na jurnata 'e sole.

Ma n'atu sole
cchiu' bello, oi ne'.
'o sole mio
sta 'nfronte a te!
o sole, o sole mio
sta 'nfronte a te!
sta 'nfronte a te!

Giovanni Capurro(작사)

Eduardo Di Capua(작곡)



Quanno fa notte e 'o sole se ne scenne,
me vene quase 'na malincunia;
sotto 'a fenesta toia restarria
quanno fa notte e 'o sole se ne scenne.

Ma n'atu sole
cchiu' bello, oi ne'.
'o sole mio
sta 'nfronte a te!
o sole, o sole mio
sta 'nfronte a te!
sta 'nfronte a te!

